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 눅 24:13-35

1.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

2. 말씀으로 뜨거워진 제자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하던 날에, 그들 중 두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갔습니다.

좌절과 슬픔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찬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지, 아니면 영안이 어두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과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셔서, 무슨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과 참담함으로 뒤덮였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인 글로바는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을 모르며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행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짧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자유의 새 시대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들은 모든 꿈과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중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추억을 회상하며, 그리고 오늘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자신의 동행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행자는 두 제자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서는 가던 길을 더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 자신들과 유하도록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시고 떼어주실 때 주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을 해 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음을 발견하고 감격합니다. 그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믿지 못

한 채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눈 어두워 못 보는 자가 아닌 눈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 레 10:1-7

#### 1.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 2. 불순종의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 그리고 숙부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아론, 동생인 엘르아살, 이다말과 함께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 속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를 망각한 채, 제사를 자신들이 드리기 편한 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 아론 그리고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인 그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자손의 잘못으로 인식시키고 계십니다. 개인의 잘못을 계기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불순종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 <속죄일의 의미> - 레 16:1-10

1. 거룩하게 지켜야 할 속죄일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또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 제비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이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말씀인 10장에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성소의 휘장 안에 위치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올 것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아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1년에 한 번 적절한 의식을 행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의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여러 준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수송아지와 숫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을 위하여 양이 아니라 특별하게 염소 두 마리와 번제를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대부분의 의식이 거행하는 동안 평상시 제사장 복장이 아니라 특별히 세마포로 된 속옷, 속바지와 띠 그리고 관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6-10절에서 다시 한번 속죄일 규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해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거룩한 진 밖으로 옮겨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6장의 제사장과 백성과 성소를 위한 속죄 의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

라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과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며 원수 된 것을 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심각한 죄 중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속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죄에 빠져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 <하나님 백성의 삶> - 레 24:10-16

##### 1. 여호와를 모독한 자

##### 2. 여호와와 백성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인 어머니와 애굽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고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장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0장을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 부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사형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거류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세상의 반칙과 나쁜 찬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뉴스를 통하여 여러 비리나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간혹 그러한 사건의 가해자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법과 원칙,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자.

<참고문헌>

1. ESV 스테디 바이블
2. 거룩 : 성소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주해서)
3. HOW 주석
4. NICOT
5. QA시스템 성경연구
6.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7. 라이프성경사전
8. 매일성경전집
7. 레위기,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
9.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누가복음